

# 1. 국밥 같은 음운변동

음절 구조의 유형과 음운 변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보기>는 음절 구조의 유형 및 음절 구조의 변동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어의 음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구조로 실현된다.

a. 모음  
b. 자음 + 모음  
c. 모음 + 자음  
d. 자음 + 모음 + 자음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연음이 일어나면 앞 음절과 뒤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들을 연음이나 음운 변동에 의해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로 나누어 보자.

㉠ 압정      ㉡ 잡일      ㉢ 축하      ㉣ 많지만      ㉤ 걸눴은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 (      A      )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없는 말: (      B      )

	A	B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 음절구조나 음운변동을 물을 때, 표기상의 음운과 발음상의 음운을 구별하여 비교할 것. 첨가나 축약 이런 것들도 둘을 비교하면서 파악하면 됨.
- 압정 ⇒ [압정] (음절 구조 변화 X)
- 잡일 ⇒ [잠닐] (둘째 음절이 c에서 d로 바뀜)
- 축하 ⇒ [추카] (첫째 음절이 d에서 b로 바뀜)
- 많지만 ⇒ [만치만] (음절 구조 변화 X)
- 걸눴은 ⇒ [건늘근] (셋째 음절이 c에서 d로 바뀜)
- 정답: ⑤

## 2. 파생어인지 아닌지, 무엇이 어근인지 잘 생각할 것

어근과 어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 01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근은 어떤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근은 접사와 결합하고,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는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짓밟다'에서 '밟-'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으로 접사 '짓-'과 결합하므로 어근이고, '짓밟-'은 '짓밟아, 짓밟고, 짓밟으니'와 같은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미와 결합하므로 어간이다. ㉠~㉤을 분석하여 어근과 어간을 분류해 보자.

㉠ 익히다      ㉡ 맞먹다      ㉢ 덧대다      ㉣ 굶주리다      ㉤ 들볶다

		어근	어간
①	㉠	익히-	익히-
②	㉡	맞-, 먹-	먹-
③	㉢	대-	덧대-
④	㉣	굶-	주리-
⑤	㉤	들-, 볶-	들볶-

- 용언 어간처럼 보일지라도 접두사는 어근이 아님. '맞먹다', '들볶다'의 '맞-'과 '들-'은 접두사이므로 어근으로 볼 수 없다.
- 옳게 정리한 표

어근	어간
익-	익히-
먹-	맞먹-
대-	덧대-
굶-, 주리-	굶주리- (← 애는 비통사적 합성어)
볶-	들볶-

- 정답: ③

### 3. 조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

조사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보기>는 조사의 쓰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의 밑줄 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당국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폈다.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 오늘까지만 등산을 해.
- ㉤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 ① ㉠: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 ② ㉡: '이'는 보격 조사로 쓰였다.
- ③ ㉢: '야'는 호격 조사로 쓰였다.
- ④ ㉣: '까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 ⑤ ㉤: '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 '에서'가 부사격조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님.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도 쓰인다는 점.
- '되다' 앞의 '이/가'는 보격 조사
- '까지'는 보조사이지, 격조사가 아님
- '야'는 진짜 유명한 호격조사임
- '와'는 'B가 A와 비슷하다'에서처럼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임
- 정답: ④

#### 4. 형태소 분석을 이용한 기본적인 어미 파악 문제

어미의 종류와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 0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미의 종류에 대해 공부했어요.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고, 어말 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는 것 기억하지요? 다음 문장에서 어미를 먼저 정확히 분석해 보고, 사용된 어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이 약을 미리 먹었으면, 병이 벌써 ㉠나았겠다.
- 도서관이 ㉡가까웠으므로 쉽게 책을 빌려 보았다.
- 맑게 ㉢갠 하늘을 보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 ① ㉠: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가 쓰였군.
- ③ ㉢: 모두 세 개의 어미가 쓰였군.
- ④ ㉣: 어말 어미로 연결 어미가 쓰였군.
- ⑤ ㉤: 하나의 전성 어미가 쓰였군.

- 나았겠다 ⇒ 낫- + -았- + -겠- + -다
- 가까웠으므로 ⇒ 가깝- + -었- + -으므로
- 갠 ⇒ 개- + -ㄴ
- 정답: ③ (솔직히 이 시점에서 이거 틀리면 문제 있음)

## 5. 종속절에서의 의미 파악

### 절과 절의 의미 관계를 묻는 유형

#### 01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과 ㉡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섬.', '배경 상황 설명', '목적/의도', '조건/가정', '이유/원인', '양보', '동시 상황' 등의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의미임을 나타낸다.

예 ㉠ 어제 집에 가는데 ㉡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

- ① 광화문 광장에 가 보니 사람이 아주 많이 모였더라.
- ②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
- ③ 그 형이 그렇게 마음에 들거든 용감하게 고백해 봐.
- ④ 큰언니는 파티 때 입을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 ⑤ 성진이는 밤새 책을 읽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 1번에서 '보니'의 '-니'는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그것을 배경 상황으로 하여 그와 관련된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사용됨. ⇒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가장 유사함
- 2번에서 '있더라도'의 '-더라도'는 앞 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 절의 행동을 주문하고 있음을 나타냄. ⇒ 양보
- 3번에서 '들거든'의 '-거든'은 '-(으)면'과 같은 의미임. ⇒ 조건/가정
- 4번에서 '사려고'의 '-려고'는 목적을 나타냄
- 5번에서 '읽느라고'의 '-느라고'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이유를 나타냄. ⇒ 이유/원인
- 정답: ①

## 6. 국밥 유형인 서술어의 자릿수는 매우 중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 02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의 기능 및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간혹 다의어에서 ㉠ 어떤 서술어가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릿수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멈추다’는 ‘차가 멈추었다.’와 같이 사물이 스스로 움직임을 그친다는 뜻의 문장에서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나는 차를 멈추었다.’와 같이 다른 사물의 움직임을 그치게 한다는 뜻의 문장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① 이 방은 책을 읽기에 너무 어둡다.  
선생님께서서는 통계 처리에 어둡다.
- ② 수리를 하니까 자동차 바퀴가 잘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은 진리이다.
- ③ 그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  
동생이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다.
- ④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 ⑤ 나는 누나가 남긴 떡을 다 먹었다.  
이 옷감에는 풀이 뺏뺏하게 먹었다.

- 첫 번째 ‘어둡다’는 ‘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한 자리, 두 번째 ‘어둡다’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라는 뜻의 두 자리 서술어임.
- 첫 번째 ‘돈다’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라는 뜻의 한 자리, 두 번째 ‘돈다’는 ‘무엇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라는 뜻의 두 자리 서술어임.
- 첫 번째 ‘만들다’는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뜻의 세 자리, 두 번째 ‘만들다’는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뜻의 두 자리 서술어임.
- 첫 번째 ‘움직이다’는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라는 뜻의 한 자리, 두 번째 ‘움직이다’는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라는 뜻의 두 자리 서술어임.
- 1~4는 의미와 자릿수 모두 다름. But, 5는 의미는 다르지만 두 ‘먹다’ 모두 두 자리로 자릿수가 같음.
  - 첫 번째 ‘먹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두 번째 ‘먹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함.
- 정답: ⑤

## 7. 상대높임법 문제...

상대 높임의 등급과 종결 표현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는 종결 표현을 학습하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종결 표현은 대체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상대 높임의 등급까지 함께 결정돼요. 문장의 종결 표현과 상대 높임의 여섯 등급을 결정하는 종결 어미들은 다음 표의 각 빈칸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떤 종결 어미가 위치하는지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직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읽다’의 어간에 적절한 종결 어미를 붙여 ㉠~㉦에 들어갈 활용형을 말해 볼까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격식체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라체					㉣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			

학생: 네, 선생님. ( [A] )가 들어갑니다.

- ① ㉠에는 ‘읽습니다’
- ② ㉡에는 ‘읽는구려’
- ③ ㉢에는 ‘읽으세’
- ④ ㉣에는 ‘읽는구나’
- ⑤ ㉤에는 ‘읽어’

- 1, 3, 4, 5는 모두 잘 대응함
- ㉡에 들어갈 말은 ‘읽으오’ 혹은 ‘읽으시오’이다. ‘-는구려’는 하오체이긴 하지만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임.
- 정답: ②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합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 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 ㄴ 천재 교과서 언어와 매체(민현식 외)
- ‘습니다’, ‘습니까’, ‘읍시오’도 각각 하십시오체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임.
- **유의할 점**
  - ‘-시지요’는 ‘요’가 있지만 해요체가 아님
  - ‘-십시오’는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하오체임
- 상대높임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 수능에 이거 나오면 대부분 니가리일 듯



## 8. 지시와 대응을 잘 구별하자

맥락 속에서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 0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성연의 집에서 주말을 보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댁으로 출발하시는 상황)

아버지: 아버지, ㉠ 지금 기차역으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래,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겠구나.

어머니: 아버님,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 당신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 어미야, 수고했다. 네 덕에 편히 쉬었다 간다.

성연: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이번 방학엔 ㉢ 저희가 찾아뵙게요.

할머니: 그래, ㉣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다가 방학에 꼭 오렴.

어머니: 성연아, 성민이는 어디 갔니?

성연: 아, 성민이 ㉤ 개 화장실 잠깐 간 거 같아요.

- ① ㉠: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 지시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② ㉡: 부부간에 상대방을 높이는 대명사가 쓰였다.
- ③ ㉢: 화자와 청자를 모두 가리키는 대명사가 쓰였다.
- ④ ㉣: 화자가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지시 대상이 표현되고 있다.
- ⑤ ㉤: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의 '지금'은 언제 발화하느냐에 따라 지시하는 시간이 달라짐. 즉 어제 발화된 '지금'과 현재 발화된 '지금'은 지시 대상이 다르다
- ㉡의 '당신'은 부부간에 상대방을 높이는 대명사가 맞음
- ㉢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1인칭 대명사임. 화자인 '성연'이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 등을 가리키지, 청자를 가리키지는 않음
- ㉣의 '부모님'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손주인 성연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선지의 설명이 맞음
- ㉤의 '개'는 '그 아이'의 준말로 바로 앞의 '성민이'를 가리킴
- 정답: ③

## 9. 중세국어는 쫓지 말고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15세기 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 02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世尊하 날 爲하야 ㉡니르쇼셔 부테 니르샤되 ㉢바르래 누분 ㉣이른 ㉤네 죽사릿 바르래 잇논 아이오 (『월인석보』 권 1)

[현대어 풀이]

세존(世尊)이시여 나를 위해 말씀하소서.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바다에 누운 일은 네가 생사(生死)의 바다에 있는 모습이고

- ① ㉠: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 ② ㉡: 청자를 높이는 어말 어미 '-쇼셔'가 쓰였다.
- ③ ㉢: 양성 모음 뒤에서 쓰이는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 ④ ㉣: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다.
- ⑤ ㉤: 대명사 '너'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은 '세존이시여'에 대응되므로 '하'가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조사임을 알 수 있음
- ㉡은 '말씀하소서'에 대응되고, '니르 · -'에 어말 어미 '-쇼셔'가 결합한 형태임. 따라서 청자를 높이는 어말 어미 '-쇼셔'가 쓰였음을 알 수 있음
- ㉢은 '바다에'에 대응되므로 '바르 · 르 + 애'로 분석됨. 부사격조사 '애', '에', '예' 중 가능한 건 '애'뿐이므로 '르 · 르'의 양성모음 · 와 어울리는 '애'가 쓰였음을 알 수 있음
- ㉣은 '일은'에 대응되므로 '체언 + 조사' 구조임. '이르 · 르'의 ㅇ · 르'은 어미가 아니라 조사
- ㉤은 '네가'에 대응되므로 대명사 '너'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음을 알 수 있음
- **정답: ④**
- 나 같은 중세국어 덕후가 아니라면 현대어 풀이를 꼭 보자

## 10. 중의성 지문형

중의성은 어떤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특성을 말한다. 문장에서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문장에서 동음이의어나 다의어가 사용될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을까요?”와 같은 문장에서 ‘길’은 물리적인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삶의 목적이나 방향과 같은 뜻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둘째, 문장의 구조가 둘 이상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는 ‘씩씩한’이 ‘동주’를 꾸며 줄 수도 있고 ‘동주와 민지’를 꾸며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즉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접속되는 구조일 때와 ‘씩씩한’이 ‘동주와 민지’를 수식하는 구조일 때에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 어떤 대상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그 반 학생은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학생 개개인’이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한 대씩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학생 전체’라면 반 학생들이 단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위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외에도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는 많다. 물론 어떤 문장이 중의성이 있다고 해도 문장이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개 앞뒤의 문맥이 주어지므로, 중의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한 문장의 중의성이 글을 원활하게 읽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으므로, 가급적 중의성이 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의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 [A]도 있다. 적절한 문맥을 제공하거나 어순을 바꾸거나 적절한 수식어 혹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거나 상세히 풀어 써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36

▶ 24052-0094

[A]를 바탕으로 ㉠~㉣에 나타난 중의성의 원인과 중의성 해소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 자리에 가 보니 배가 많이 있었다.
-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 ㉢ 언니의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떠오른다.
- ㉣ 대학에 합격한 영수와 철수가 함께 찾아왔다.
- ㉤ 선주는 화를 내며 변명하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 ① ㉠: ‘배’의 동음이의어가 있으므로 ‘배’ 앞에 ‘큼직한’과 같은 수식어를 추가하여 ‘배’의 의미를 한정한다.
- ②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 중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두 명의 포수가’ 뒤에 ‘각각’을 넣어 준다.
- ③ ㉢: ‘언니의’의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언니의’를 ‘언니를 찍은’과 같이 상세히 풀어 써 준다.
- ④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철수가’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 ⑤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화를 내며’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 ‘배’는 belly, pear, ship,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음이의어인데, 지문에서 말한 첫째 중의성에 해당한다. ㉠은 문장의 의미상 belly를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pear와 ship 중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중의적인데 ‘큼직한’이라는 수식어로는 중의성을 해소하기는 충분치 않다.
- ‘두 명의 포수가’ 각각 ‘참새 네 마리’를 잡아 총 여덟 마리의 참새를 잡은 해석과 ‘두 명의 포수가’ 합쳐서 총 네 마리의 참새를 잡은 해석 둘 다 가능하므로 지문의 셋째 중의성에

해당한다. ‘두 명의 포수가’ 뒤에 ‘각각’ 을 넣어 주면 전자로 해석이 고정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 ‘언니의 사진’은 ‘언니가 소유한 사진’, ‘언니가 찍은 사진’, ‘언니를 찍은 사진’, ‘언니가 보내준 사진’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둘째 중의성이다. ‘언니의 사진’을 ‘언니를 찍은 사진’과 같이 상세히 풀어 써 주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영수’인 해석과 ‘영수와 철수’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므로 지문의 둘째 중의성에 해당한다. ‘철수가’를 문장 맨 앞으로 옮기면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영수’인 해석으로 한정된다.
- 화를 낸 사람이 ‘선주’인 해석과 ‘그’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화를 내며’ 뒤에 심표를 사용하면, ‘선주는 화를 내며’가 이어진문장의 앞 절로 해석되므로 화를 낸 사람이 ‘선주’인 해석으로 한정된다.
- **정답: ①**

## 11. 갑분 로마자

37

▶ 24052-0095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 사례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파랑	[파랑]	parang
㉡	물건	[물건]	mulgeon
㉢	비빔밥	[비빔뵁]	bibimbap
㉣	국사	[국싸]	guksa
㉤	칼날	[칼랄]	kallal
㉥	뺨는	[뺨는]	ppeonneun
㉦	치닫고	[치닫꼬]	chidatgo

- ① ㉠과 ㉡을 보니, ‘ㄹ’은 자음 앞인지 모음 앞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구나.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구나.
- ④ ㉠, ㉡, ㉤을 보니, 유음화가 일어나면 앞 ‘ㄹ’은 뒤 ‘ㄹ’의 로마자 표기에 맞추어 적는구나.
- ⑤ ㉢, ㉣, ㉦을 보니, 평음이면서 파열음은 초성인지 종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 ‘파랑’의 ㄹ은 ㅏ 앞에 있는데 r로, ‘물건’의 ㄹ은 ㅓ 앞에 있는데 l로 표기됐으므로 맞는 말
- ㉤의 [뺨]은 ‘pp’로 적었고, ㉣의 [ㅃ]은 ‘b’로 적었다. ㉤의 [ㅃ]은 원래부터 된소리였고, ㉣의 [ㅃ]은 된소리되기가 적용 되어 바뀐 소리이므로 맞는 말
- [뺨는]을 ‘ppeatneun’이 아니라 ‘ppeonneun’으로 썼으므로 맞는 말
- 반대임. 뒤 ‘ㄹ’을 앞 ‘ㄹ’의 로마자 표기에 맞추어 적음.
  - ㉠과 ㉡에서 ㄹ은 상황에 따라 ‘r’이나 ‘l’로 달리 표기됨을 알 수 있음.
  - 유음화가 일어나 ‘ㄹ ㄹ’ 발음이 된 ㉤에서는 앞 ‘ㄹ’의 로마자 표기인 ‘l’에 맞추어 뒤 ‘ㄹ’의 로마자 표기인 ‘r’을 ‘l’로 바꾸어 적고 있음.
- ㉣에서 초성의 ㅃ은 b로, 종성의 ㅃ은 p로 썼으므로 맞는 말
- 정답: ④
- 나온다면 보기를 주고 나올 거니까 로마자 문제를 봤을 때 얼타지 말고 패턴만 잘 찾자.

## 12. ‘호랑이었다’의 ‘였’은 ‘이었’이 준 말임.

13. 깨알 중세국어 지식 문제

39

▶ 24052-009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휘<sup>㉠</sup>기픈<sup>㉡</sup>남근<sup>㉢</sup>브르매아니뵘씨<sup>㉣</sup>꽃<sup>㉤</sup>도코여름하  
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① ㉠: '현대어 풀이'의 '깊은'을 참고할 때, 음성 모음 뒤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군.
- ② ㉡: '현대어 풀이'의 '나무는'을 참고할 때, 명사 뒤에서 보조사 '은'이 쓰였군.
- ③ ㉢: '현대어 풀이'의 '바람에'를 참고할 때, 양성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군.
- ④ ㉣: '현대어 풀이'의 '꽃이'를 참고할 때,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로 쓰였군.
- ⑤ ㉤: '현대어 풀이'의 '좋고'를 참고할 때, 형용사 어간 뒤에 연결 어미 '-고'가 쓰였군.

- | 는 음성이 아니라 **중성모음**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양성모음 뒤에선 '-오 · ㄴ'이, 음성모음 뒤에선 '-은'이, **중성모음인 'ㅣ' 뒤에서는 두 형태 모두** 쓰였다.
- 현대어 풀이와 비교하면 ②, ③, ④, ⑤는 맞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참고) 주격 조사는 자음으로 끝나면 '이', 'ㅣ'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ㅣ', 'ㅣ'나 반모음 'ㅣ'로 끝나면 ∅로 나타남
- 답: ①

14. 이제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음운변동 순서

35

▶ 24052-0138

㉠, ㉡의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약이 있다. 이 제약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이외의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오면, 이 일곱 가지 중 하나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두 개의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올 때에도 하나만 남고 하나는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단어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 | ㉠        | ㉡      |
|----------|--------|
| ① 닭과[닥파] | 넓고[널꼬] |
| ② 읊지[읍찌] | 잃지[일치] |
| ③ 굽게[글께] | 웁다[읍따] |
| ④ 잃고[일꼬] | 넓다[널따] |
| ⑤ 앓다[안타] | 굽내[궁내] |

- ‘웁다’에서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 버리면 ㄹ 뒤에서 ㄷ이 경음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음! 즉 ‘웁다→웁다→웁따 →읍따’라는 순서의 ‘음끝>경음화>자단’의 순서로 설명해야만 함. 그래야 ㅂ이 ㄷ을 경음화시킨다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ㄹ, ㄴ, ㄹ 꺾받침도 마찬가지. 평음이 경음화되는 건 ㄱ, ㄷ 때문이지, ㄹ이 하는 게 아님!!
- ①은 각각 ‘닭과→닭과→닥파’, ‘넓고→넓꼬→널꼬’의 순서인데 음끝이 일어나지 않음
- ②는 각각 ‘읊지→읊지→읊찌→읍찌’, ‘잃지→일치’로 분석되므로 ‘읊지’는 ㉡에, ‘잃지’는 ㉠과 ㉡ 모두 해당하지 않음
- ③에서 ‘굽게’는 ‘굽게→굽게→글께’의 변화로 자단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함. ‘웁다’는 상술했듯이 자단과 음끝 모두 일어나므로 ㉡에 해당함.
- ④, ⑤의 ‘잃고’와 ‘앓다’ 모두 격음화만 일어나므로 ㉠과 ㉡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답: ③

## 15. 기본적인 이어진문장 판단

**36**

▶ 24052-0139

〈보기〉는 이어진문장의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어진문장에서 앞 절이 뒤 절의 안으로 이동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이가 울자 엄마는 아이를 달랬다.	⇒	엄마는 아이가 울자 아이를 달랬다.
산은 아름답고 강은 깨끗했다.	⇒	*강은 산은 아름답고 깨끗했다.
책을 빌리려고 철수는 도서관에 갔다.	⇒	철수는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다.
그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의심했다.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	*동생은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빨간색을 좋아한다.

\*는 비문법적 문장임.

위의 예들을 통해 ( ㉠ )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은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 ③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 ④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 ⑤ 앞 절의 서술어와 뒤 절의 서술어가 자릿수가 같은

- ‘울자’, ‘발생하자’의 ‘-자’와 ‘빌리려고’의 ‘-려고’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형성함
- ‘산은 아름답고’의 ‘-고’와 ‘좋아하지만’의 ‘-지만’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형성함
- 답: ④



## 16. 동사의 종류 지문형 문제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된다. 자동사는 ‘눅다’와 같이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타동사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쳐 주어는 물론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하나의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치다’는 ‘울음소리가 그치다.’에서는 자동사로 쓰인 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다.’에서는 타동사로 쓰인다.

동사의 분류는 행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어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능동사라고 하고,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남에게 움직임을 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다.’에서 ‘잡다’는 주어인 ‘경찰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능동사이다. 이에 비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에서 ‘잡히다’는 주어인 ‘도둑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사이다. 능동사 ‘잡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반면, 피동사 ‘잡히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동사를 ‘아이가 밥을 먹다.’에서 ‘먹다’처럼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동사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의 ‘먹이다’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동사는 자동사인 경우도 있고, 타동사인 경우도 있으나 사동사는 모두 타동사이다.

피동사와 사동사는 능동사와 주동사에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능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되고, 주동사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 ‘먹이다’가 형성되는 것이다.

㉠ 한편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사동사나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 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머리를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갖는 ‘감다’의 사동사인 반면, ‘줄이 잘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말리거나 빙 돌리다.’의 의미를 갖는 ‘감다’의 피동사이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에 입김을 불었다.’에서의 ‘불다’는 타동사인 반면, ‘바람이 분다.’에서의 ‘불다’는 자동사이다.
- ② ‘편이 돌로 갈렸다.’에서의 피동사 ‘갈리다’에 대응되는 능동사는 자동사이다.
- ③ ‘동생에게 시계를 보였다.’에서의 사동사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는 타동사이다.
- ④ ‘막차가 끊겼다.’에서의 ‘끊기다’는 타동사 ‘끊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해 자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⑤ ‘낙엽을 불에 태웠다.’에서의 ‘태우다’는 자동사 ‘타다’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해 타동사로 쓰인 것이다.

- 전자의 ‘불다’는 목적어를 요하지만, 후자의 ‘불다’는 목적어를 요하지 않으므로 맞는 말
- ‘편이 돌로 갈렸다’ ↔ ‘편을 돌로 갈랐다’ ⇒ 능동사 ‘가르다’는 타동사
-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 ‘보다’는 목적어를 요하는 타동사
- ‘끊- + -기’의 구조가 맞고 자동사 맞음
- ‘태우다’는 목적어를 요하므로 타동사이며, 사동접미사 ‘-이우’가 결합함
  -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따라 수완에서도 ‘-이우’를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했음
- 정답: ②

## 17. 음운 및 맞춤법 지문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형태소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 환경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땅’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된다. 그러나 ‘밭’은 그렇지 않다.

- (가) 밭을[바툼] …… [바티]
- (나) 밭이[바치] …… [바츠]
- (다) 밭도[밭또] …… [반]
- (라) 밭만[반만] …… [반]
- (마) 텃밭을, 텃밭이, 텃밭도, 텃밭만

원래의 소리가 유지되는 (가)와 달리 (나)~(라)에서는 ‘밭’이 그 뒤에 어떤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마)에서 각각의 ‘밭’은 모두 ‘ㅃ’이 ‘ㅍ’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결국 ‘밭’이라는 형태소는 앞뒤 환경에 따라 총 여덟 가지의 소리로 실현된다.

만약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 경우 하나의 똑같은 형태소를 여덟 가지의 다른 표기로 적게 되어 매우 복잡한 문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함’은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소리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표기로 고정한다는 뜻으로서 문자 표기와 해독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포기하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아름답-’과 ‘-어’가 결합할 때 ‘아름답어’가 아니라 ‘아름다워’로 활용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다. 이 밖에도 (                      [A]                      )는 것과 같은 예를 더 들 수 있다.

### 35

▶ 24052-0183

(가)~(마)의 ‘밭’의 발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앞 음절 종성이 뒤 음절로 연음이 되었고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② (나):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ㅃ’이 ‘ㅍ’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③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ㅃ’이 ‘ㅍ’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④ (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마): ‘ㅃ’이 앞에 있는 마찰음 ‘ㅅ’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났다.

### 36

▶ 24052-0184

ㄱ~ㅁ 중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알맞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푸르다’처럼 어간 ‘푸르-’에 어미 ‘-었-’이 결합할 때 ‘었’의 바뀐 소리인 ‘렸’을 그대로 적는다
- ㄴ. ‘딱하다’처럼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를 밝혀 적는다
- ㄷ. ‘집만’처럼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 ㄹ. ‘설날’처럼 끝소리가 원래 ‘ㄹ’이었던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때 ‘ㄹ’이 ‘ㄷ’ 소리로 나면 ‘ㄷ’으로 적는다
- ㅁ. ‘굳이’처럼 ‘ㄷ’ 뒤에 조사, 어미, 접사의 ‘이’가 와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도 ‘ㄷ’이 아닌 ‘ㄷ’을 그대로 적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7-1. 35번(매우 기초적인 음운변동)

-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에 뒤의 첫 소리인 ‘ㅂ’에 영향을 주어 [ㅃ]으로 발음이 바뀐 것이므로, 마찰음 ‘ㅅ’이 영향을 준 게 아님.
- 연음은 음운이 자리만 옮긴 것이므로 음운 변동이 아님.
- 정답: ⑤

17-1. 36번(지문 잘 보고 한글맞춤법의 원리를 생각하자)

- ㄱ: ‘-었-’이 ‘-렸-’으로 소리가 바뀌었을 때 ‘었’으로 적지 않고 ‘렸’으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며, 음운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 ㄹ: ‘설’과 ‘달’이 합성되어 ‘선달’이 되었을 때 그 소리가 [선 : 딸] 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ㄹ’이 ‘ㄷ’으로 소리 나게 된 것을 그대로 적었고, 음운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 이때 ‘달’을 ‘딸’로 적지 않은 이유는 된소리되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ㄴ: ‘딱하다’를 소리대로 적으면 ‘따카다’가 되어야 한다. ‘딱하다’와 같이 적는 것은 ‘딱’과 ‘하다’를 분명히 밝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려는 어법이 적용된 것이다. 또, [따카다]는 격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 ㄷ: ‘집만’을 소리대로 적으면 ‘짐만’이 되어야 한다. 체언 ‘집’과 조사 ‘만’을 분명히 구별하여 적는 어법이 적용된 것이다. [짐만]은 비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 ㅁ: ‘굳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구지’가 되어야 한다. ‘굳이’와 같이 적는 것은 ‘굳’과 ‘이’를 분명히 밝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려는 어법이 적용된 것이다. [구지]는 구개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 정답: ②

## 18. 시제와 상을 잘 구별하자

### 37

▶ 24052-0185

〈보기〉의 설명에 따라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았/었-’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음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형태소이고, ‘-ㄴ/는-’은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형태소이다. 그런데 간혹 시제 형태소가 다른 시간을 나타내거나 동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 저 나무 위의 감이 참 잘 익었구나.
- ㉡ 커피를 많이 마셨으니 오늘 잠은 다 잤다.
- ㉢ 인간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 ㉣ 드디어 내일 그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
- ㉤ 나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기 위해 일기를 쓴다.

- ① ㉠: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② ㉡: 미래의 사건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 ③ ㉢: 어떠한 시간에도 성립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나타낸다.
- ④ ㉣: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나타낸다.
- ⑤ ㉤: 특정한 시간에 사건이 일어날 예정임을 나타낸다.

- ‘익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데에 ‘-었-’을 사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에 ‘-았-’이 사용되어 있다. 이는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이 쓰이고 있다. 보편적 진리에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현재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ㄴ-’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데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ㄴ-’은 일기를 쓰는 사건이 특정한 시간인 ‘매일’ 일어날 예정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 것이다.
- 정답: ⑤

19. 지엽인 듯 지엽 아닌 우리말의 통시적 변화

39

▶ 24052-0187

〈보기〉는 우리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 스시 > 사이
- ㉡ 플 > 풀
- ㉢ 아츰 > 아츰 > 아침
- ㉣ 브티다 > 부치다

- ① ㉠에서 받치음 ‘ㅅ’이 연구개음 ‘ㅇ’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원순 모음 ‘ㅡ’가 평순 모음 ‘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ㅈ’ 뒤에서 고모음 ‘ㅛ’가 저모음 ‘ㅣ’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모음 ‘ㅣ’ 앞에서 ‘ㅌ’이 경구개음 ‘ㅊ’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에서 ‘ㅛ’는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모두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이’의 ㅇ은 연구개음이 아니고 음가가 없는 ㅇ임
- ㅡ가 평순이고, ㅜ가 원순임
- 저모음인 ‘ㅛ’가 고모음인 ‘ㅛ’로 바뀌고 ‘ㅛ’가 다시 고모음 ‘ㅣ’로 바뀐 거임.
- ㅣ 앞에서 ㅌ이 경구개음 ㅊ으로 바뀐 것은 맞말.
- ‘ㅅ · ㅅ ㅣ > 사이’에선 ‘ㅛ’가 ‘ㅛ’로 바뀌었고, ‘아츰 · ㅁ > 아츰’에선 ‘ㅛ’가 ‘ㅛ’로 바뀌었는데, ‘ㅛ’와 ‘ㅛ’는 전설이 아니라 모두 후설모음임.
- 정답: ④
- 음운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풀린다

20. 국밥 유형 음운변동 문제

35

▶ 24052-022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덮- + -고 → [덥꼬]
- ㉡ 앓- + -는 → [알른]

- ① ㉠에서는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만 두 번 일어났다.
- ② ㉡에서는 탈락과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각각 한 번 일어났다.
- ③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섞지[석찌]’를 들 수 있다.
- ④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와 동일한 횟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많아[마:나]’를 들 수 있다.
- ⑤ ㉠과 ㉡에서는 모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수나 종류를 제한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덮고→덥고→덥꼬: 음끝(교체) → 경음화(교체)
- 앓는 → 알는 → 알른 : 자음군단순화(탈락) → 유음화(교체)
  - 참고) ㄴ이라는 자음 앞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므로 ㅎ 탈락이 아니라 자음군단순화임.
- 섞지 → 석지 → 석찌: 음끝 → 경음화
  -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며, 겹받침은 음끝으로 대표음으로 교체됨
- ㉡에서는 음운변동이 2회 일어났다. ‘많아’에서는 모음 ㅏ 앞에서 ‘ㅎ’이 탈락한 후에 앞의 ‘ㄴ’이 뒤 음절로 단순히 연음만 되었으므로 음운변동은 1회 일어났다.
- 정답: ④

## 21. 직/간접 인용표현의 전환

37

▶ 24052-0230

〈보기〉는 인용 표현에 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직접 인용 표현은 원 발화자의 말이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고, 간접 인용 표현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글에서는 직접 인용된 내용 앞뒤에 따옴표를 씁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어저께 그 공원에서 “㉠네 동생이 심심해해서 ㉡내가 ㉢어저께 ㉣네 동생을 데리고 ㉤여기서 ㉥놀았어.”라고 말씀하셨다.

학생: 네, 선생님. ( [A] )

선생님: 그래요. 잘 대답했어요.

- ① ㉠은 ‘할머니’가 아닌 ‘나’의 관점에서 본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니까 ‘내’로 바꿉니다.
- ② ㉡은 ‘할머니’를 높이는 재귀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니까 ‘당신께서’로 바꿉니다.
- ③ ㉢은 발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그저께’로 바꿉니다.
- ④ ㉤은 ‘내가’ 현재의 관점에서 본 ‘그 공원’의 위치를 표현해야 하니까 ‘거기서’로 바꿉니다.
- ⑤ ㉥은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에 맞게 쓰여야 하니까 따옴표가 없어지고 ‘놀았다고’로 바꿉니다.

-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네’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내’로 바뀌어야 한다.



-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내가’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당신께서’로 바뀌어야 한다. ‘당신’은 극존대 재귀 대명사이다.
-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어저께’는 실제로는 어저께의 어저께이므로 간접 인용절에서는 ‘그저께’ 로 바뀌어야 한다.
-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여기서’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거기서’로 바뀌어야 한다.
- 종결 표현, 인용 조사가 간접 인용에 맞게 바뀌고 따옴표까지 없어진 것은 적절하지만, ‘할머니’의 행위를 ‘나’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므로 높임 표현까지 바꾸어 ‘노셨다고’로 써야 한다.
- 정답: ⑤

## 22. 이중피동 및 부적절한 사동 표현

35

▶ 24052-0273

밑줄 친 부분에서 <보기>의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

피동은 피동사나 ‘-어지다’를 통해 표현된다. 또 ‘명사 + -하다’ 형식의 능동사는 ‘명사 + -되다’ 형식의 피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동의 형식들 중 둘 이상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 피동 형식의 불필요한 중복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사동은 사동사나 ‘-게 하다’를 통해 표현된다. 또 ‘명사 + -하다’ 형식의 주동사는 ‘명사 + -시키다’ 형식의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명사 + -하다’ 형식의 주동사를 써야 할 곳에 ‘명사 + -시키다’ 형식의 사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 현주가 나한테 소개시켜 준 친구는 이번 학년도에 나하고 같은 반에 배치되었다.
- ㉡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빨리 입원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 준수가 그 약하던 몸을 이 정도까지 단련시켰다고 하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 ㉣ 그에게 탁구 칠 때의 바른 자세를 오래 연습시켰는데도 그의 자세는 고쳐지지 않았다.
- ㉤ 이 선을 저 선에 연결시키고 나서 시동을 다시 걸어 보시면, 잘 수리되었음을 아실 겁니다.

- ‘소개시켜’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에 해당하며 ‘소개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치되었다’는 적절한 피동 형식이다.
- ‘입원시켜’는 적절한 사동 형식이다. ‘생각되어집니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되었으므로 ㉠에 해당하며 ‘생각됩니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몸을) 단련시켰다고’는 ‘(몸을) 단련했다고’로 써도 되므로 ㉠에 해당한다. ‘믿겨지지’는 피동사 ‘믿기다’에 다시 ‘-어지다’를 붙인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믿기지’ 혹은 ‘믿어지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습시켰는데도’는 적절한 사동 형식이고, ‘고쳐지지’는 적절한 피동 형식이다.
- ‘연결시키고’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에 해당하며 ‘연결하고’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되었음을’은 적절한 피동 형식이다
- **정답: ㉢**

## 23. 보조용언 지문형 문제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동사는 '본받다', '앞서다', '돌아오다'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동사이다. 이들 합성 동사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받다'는 '본을 받다'와 같은 구성과 대응되고, '앞서다' 역시 '앞에 서다'와 대응된다. '돌아오다'는 '모퉁이를 돌아 집에 왔다'와 같은 문장을 고려하면, '돌아오다'와 대응되는 합성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동사와 구 구성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어'로 용언 어간이 연결된 구성이 합성 동사인지 구 구성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조 용언이 쓰인 구 구성의 경우, 보조 용언을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어 더욱 구분이 어렵다. 이때는 ㉠ '-아/-어' 뒤에 '서'가 붙을 수 있으면 구 구성, 그렇지 못하면 합성 동사 또는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보조 용언은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보다 그 의미가 더 추상적이라는 점을 통해 합성 동사와 보조 용언 구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합성 동사가 이처럼 대응되는 구 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를 갖는 '알아듣다'는 '알다'와 '듣다'의 순서의 결합으로 그 의미를 적절히 도출할 수 없다. 들은 이후에 알게 된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알아듣다'에서는 '알다'와 '듣다'의 결합이 거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물다'의 경우, '사탕을 깨물다'는 '사탕을 깨어서 물다'라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혀를 깨물다'는 '깨다'와 '물다'의 두 동작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니므로 애초에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통사적 합성어는 대응되는 구 구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 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 37

▶ 24052-027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를 꺾아 먹었다.'에서 '꺾아 먹다'는 구 구성이다.
- ② '학생이 연필을 가져갔다.'에서 '가져가다'는 합성 동사이다.
- ③ '문을 열어 놓아라.'에서 '열어 놓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④ '편지를 부쳐 주었다.'에서 '부쳐 주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⑤ '아이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에서 '집어 던지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38

▶ 24052-0276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밭줄을) 잡아당기다.
- ㉡: (땅을) 팔아먹다.
- ㉢: (시냇물을) 건너뛰다.
- ㉣: (재산을) 끓어모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3-1 37번(당연하게 풀려야 하는 본+보 vs 본+본 구별 문제)

- '아이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에서 '집어 던졌다'는 '집어서 던졌다'가 성립하므로 구 구성이다.
- 정답: ⑤

### 23-2 38번(통사적 합성어의 분석)

- ㉠의 ‘잡아당기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의 의미를 갖는 ‘잡다’와 ‘물건 따위를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당기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이다. ‘잡아당기다’는 ‘잡아서 끌어당기다.’의 의미로 ‘밧줄을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다.’와 같이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 ㉡의 ‘팔아먹다’에서 ‘먹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없다.
- ㉢의 ‘건너뛰다’에서 ‘건너다’와 ‘뛰다’의 순서로 ‘건너뛰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없다.
- ㉣의 ‘긁어모으다’는 ‘긁다’와 ‘모으다’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돈을 긁어서 모았다.’와 같이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 **정답: ㉣**